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탐색과 가능성*

Yoo, Sung-Sang**

I. 세계시민교육의 등장과 쟁점

2012년 9월, UN 사무총장인 반기문의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이후 세계시민교육은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던 것이 3년이 지난 2015년 9월 UN의 개발정상회의(UN Development Summit)에서 합의된 지속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공식적으로 전지구적인 교육개발협력의 목표이자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정해졌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이후의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기존 개발목표와 상당히 다른 성격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지속발전목표는 영유아단계의 교육적 지원에서부터 고등교육 및 제도권 바깥의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등 모든 단계의 모든 영역의 교육적 활동을 교육개발의 요소이자 곧 구체적인 달성 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들이 양적 측적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한 교육 기회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고 있다면,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질적인 측면의 교육적 활동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을 앞두고 제시되었던 세계시민교육 의제에 대한 논쟁은, 세계시민교육이 과연 개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자 활동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세계시민교육이 개발협력의 내용으로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왔다. 비록 합의할 수 없는 개념으로 다양한 맥락적 상황이 고려될 수 밖에 없지만,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아우르고 국제사회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토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 글은 아시아교육연구 17권 특별호 발간을 여는 서문입니다.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구 영역이다. 기존에 유사하게 사용되었던 개념들(예를 들어, 코스모폴리탄시민교육(cosmo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구시민교육(planetary citizenship education),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등)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유성상, 2015). 또한 개념보다는 실천이 중시되어 왔던 역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특징을 기능주의와 갈등론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소프트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구분하고 있는 연구(예를 들어 Andreotti, 2006)와,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성, 급진적 세계시민성, 그리고 변혁적 세계시민성으로 구분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정책적 지도를 만들고 있는 연구(예를 들어, Schultz, 2009), 그리고 특정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비판적 담론으로 포괄하고 있는 연구(예를 들어 Wright(2012)은 세계시민성을 신식민주의적 특성을 지닌 담론으로 규정하고 있고, Torres(2016)는 비판적 교육학에 근거한 다문화주의의 담론 속에서 이론적 지형을 찾고자 한다)들이 있다.

학술적인 논의의 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채 엄밀한 학술적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듯하다. 특히 각 국가별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수용하고, 초·중·등 공교육 제도 속에서 교육과정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도 이후의 교육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선도할 교사들을 선발, 교육/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한바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대체하면서 단위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세계시민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학술적인 엄밀함에 기반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둘러싼 개념간 쟁론이 활발하지만, 실제 제도 속 형식 교육 및 비형식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라 불리우는 교육실천을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개념적 논쟁과 실천적 확산은 상호 연계되어 세계시민교육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

II.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본 논문집은 이상에서 언급했던 세계시민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쟁점들을 아우르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성에 바탕한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실천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들은 무엇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 담론의 다양성의 폭을 넓히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아시아적 특성(The Asia-ness)’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꽤 오랫동안 이어져오고 있다(Otmazgin, 2011). 서로 다른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발전해 온 지난 시기들을 염두에 둘 때, 사회문화적 민족 정체성의 문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해석과 반성의 문제, 현대의 환경과 자원의 문제를 지역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아시아’를 규정하는 지역적 유사성이 어디까지 포괄하고 혹은 배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만큼이나 ‘아시아적 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열려진 학술적 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집은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대만의 교육연구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공통 화제로 삼아 향후 발전시키고 해결해야 할 교육적 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집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은 꽤 오랜 연구자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맺게 된 결실이다. 특히 2015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을 미리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란 주제가 갖는 특징들에 대해 미리 검토할 수 있었다. 비록 다양한 영역의 연구주제와 문제들이 제기되어 아시아와 세계시민교육의 연계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수렴되지는 않지만,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논쟁이 지역적 특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귀중한 연구 결과들이라고 본다.

중국에서 교육과 연구 교수로 있는 미시아스젝 부부(Misiaszek&Misiaszek) 교수의 연구는 아시아라는 지역성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미시아스젝 부부는 “교차점에서 바라본 세계시민교육과 에코페다고지: 아시아적 관점에서의 비교”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세계시민교육이 세계화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논쟁적 개념으로 등장하여 각자의 시민성교육 모델들이 경쟁하듯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과 연계된 교육학적 논의를 세계시민성과 연계하여 이의 중요성과 실천성을 서구적 특징과 동아시아적 특징으로 구분함으로써, 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모델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비록 저자들이 아시아적 특성에 기초한 교육적 논의에 전문성이 깊지 않다고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하여 공동체 속에서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적 가치를 어떻게 담지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보다 아시아적 모델로서 기 능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특히 에코페다고지의 중요성과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구적 개념으로 시작된 시민성의 비교준거로, ‘자아를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지,’ ‘조화의 개념

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프레이리(1970)의 '프락시스가 세계시민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그리고 규범적 이데올로기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시민성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동-서의 비교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세계시민성 인식조사는 절강대학교의 송길선 교수가, 대만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성에 관한 연구는 대만국립교육연구원의 첸웨이 창(Chen-Wei Chang) 박사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적 세계시민교육의 특성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심희정 박사가 정련된 방법론에 근거하여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시대 중국의 세계시민교육 형성과 확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한 송길선 교수는 중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개발협력의 지원주체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 논문은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중국의 세계시민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세계시민성을 형성, 확장하기 위한 주요 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커져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전략적 행동으로 세계시민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사실 사회주의와 유교 사상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국가체제로서 중국은 이미 시민교육의 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교육적 전통은 전지구적 문제를 공유하고, 국민국가체제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가치를 관용할 수 있는 인식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논문은,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중국 사회의 세계시민성 형성과 확장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설문조사 및 면담을 병행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점차 국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로써 학생들의 자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 ‘중국이라는 국가는 여전히 세계시민교육을 진지하게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가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중요하게 대두하는 지점이 주로 개인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 차원의 전문성과 능력이 연계되는 지점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작 세계시민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적 긴장과 갈등은 피하고자 한다. 어쩌면 중국의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체계적 시민교육의 확장정도로 여겨지는지도 모르겠다.

첸웨이 창 박사는 “나, 해외에서 공부했어, 그래서 세계시민이야?: 세계시민성과 국제교류경

험의 상관성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 박사는 대만의 대학생들이 가지는 국제교육교류 경험이 세계시민성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연구를 통하여, 대만의 세계시민교육의 문제의식과 향후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화는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다원화되고 개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교류협력의 기초적인 역량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과관계 혹은 상관성을 특징짓기 어려운 것은, 국제교육의 경험이 곧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이다. 창 박사는 이러한 질문에 토대하여 과연 국제교육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세계시민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스스로를 세계시민이라고 보는 관점이 어떻게 연계 혹은 상관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69명의 국제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창 박사는 국외 수학경험, 특히 체계적으로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교육교류경험이 세계시민성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수학 기간 및 수학 국가에 대한 차이에 따라 이러한 의미있는 변혁적 정체성의 상관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외 교육경험은 학생들이 전지구적 가치에 대한 긍정,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긴장과 갈등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창 박사는 대만 정부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교육의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심희정 박사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현황과 한계”를 제목으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Andreotti(2006)이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두 개념적 접근, 즉 ‘소프트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기준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현상을 분석해보고, 향후 과제를 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인본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및 평화로운 교류협력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국제사회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 많은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세계시민교육은 자국 중심적인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장에서 소프트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접하는 보다 균형잡힌 관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갈등이 접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하고, 세계시민교육은 일방향적인 지식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쌍방향적인 지식의 생산과 공유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저자에게 있어 Andreotti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구분

과 관점은 기존 프로그램형 세계시민교육을 분석하는 틀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보다 균형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견인하기위한 중요한 준거로도 작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형렬 교수의 “세계화, 문화적 전통, 그리고 청소년의 가치지향”라는 제목의 논문은 세계화가 각 국가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가치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제비교로 보여주는 연구이다. 국제비교교육연구의 전문가로서 김형렬 교수는 국제시민성교육연구(ICCS)의 200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청소년들의 가치지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위계선형모델(HLM)을 통하여 분석한 논의의 결과, 세계화가 전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치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가설이 기각되었다. 오히려 저자는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세계화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가치 다양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이주민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태도에는 특정 국가의 세계화 정도와 상관성이 없었다. 또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이 청소년들의 종교적, 국가적, 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세계화와 별 상관성이 없었다. 김형렬 교수의 논의는, 사실 세계화라는 담론을 통해서 전지구적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어서 단일한 가치를 형성해내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통계적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태도, 가치 경향을 비교분석한 것은 앞서 다른 논문들에서 다루었던 세계시민교육의 이슈와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계화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하는 전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는 글로벌 담론에 도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각 문화공동체의 맥락적인 사회문화적 가치가 보다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시아스책 부부의 연구가 던졌던 세계화와 세계시민성의 모호한 관련성에 유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세계화라는 거대 담론과 어떻게 연계지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비록 특정한 연구질문을 중심에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일련의 쟁점식 논의는 아니지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화두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확장적 담론인지를 판단하고 미래적 논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가능한가?

복잡하게 발전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개념에서 ‘시민(citizen)’ 혹은 ‘시민성(citizenship)’이란 개념은 근대사회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중세 사회의 개인을 귀속적으로 규정하던 것과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고 등장했던 공교육제도를 통하여 교육의 대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국민(國民), 공민(公民),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개념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었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근대 이후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정작 그 속에 발 딛고 있는 개인이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다 큰 공동체(지역, 국가, 지구)와 어떻게 관계지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정작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개인이 사회와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를 시민성교육 혹은 시민교육이란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면, 여기에 가치지향적이고 변혁적인 이데올로기를 투영하여 제시한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적(democratic)’이라는 말의 방향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 개념에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세계’,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지칭하는 대상으로서의 ‘시민’,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의 방법이자 목표로서 ‘교육’이라는 개념들이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양상이다. 세계(화), 시민(성), 그리고 교육, 이 단일한 세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 채 합의된 것이 없는 마당에 이 셋이 어우러져 표출되는 복합적 개념인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 논문집은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특징적 세계시민교육 담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 중국, 대만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공통의 주제로 묶일 수 없을만큼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결코 쉽지 않으며 더불어 공유하는 지역적 특성이 세계시민교육이란 화두에서 어떻게 투영 혹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미시아스펙&미시아스펙의 논의에서 볼수 있듯이 세계시민교육의 대안적 탐색이 환경과의 조우, 즉 생태 친화적인 교육연구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라는 거대한 지역적 소재 자체만으로는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인도할 가치와 교육적 방향성을 인도하리라 보기 어렵다. 중국(송길선), 대만(첸웨이 창), 그리고 한국(심희정)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은 아직 각 국가별로 탐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탐색에 미치는 영향은 국지적인 측면과 함께 전지구적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을 동반하고 있다(김형렬).

‘과연 아시아에서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초월적 개념이 실제 제도 안팎의 교육 실천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서구적 개념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 고유한 속성의 세계시민교육을 구성해내려하기 보다는 이미 실천되고 있는 교육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전지구적 세계시민교육의 담론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논쟁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집의 논의를 단일한 특성을 모아내기 위한 '아시아적 세계시민교육'이 아닌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쟁점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으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기 바란다.

참고문헌

- 유성상(2015). “글로벌교육 의제로서 세계시민교육: 개념과 특징”. 교육미래학을 위한 시론: 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서울: 학지사, pp. 173-193.
- Otmazgin, Nissim Kadosh(2011). Commodifying Asian-ness: entrepreneurship and the making of East Asian popular culture. *Media Culture & Society*, 33(2), 259-274.
- Shultz, Lynette(2007).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Conflicting Agendas and Understandings. *The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3), 248-258.
- Torres, A. Carlos (2016).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xford Education Review (In Process), pp. 1-20.
- Wright, Colin(2012). Postcolonial Cosmopolitanisms: Towards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based on ‘Divisive Universalism’. *Postcolonial Perspective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reotti& de Souza(Edt), pp. 47-67.

*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E-mail: sunsang@snu.ac.kr